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한나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삼상2:6~8). 그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늘 브닌나에게 멸시를 당하던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사 그를 높이셨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롬4:17). 그 하나님은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사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고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를 살리셨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나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히6:17~18)라고 외쳤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16:23) 하셔서 나는 무엇이든 구했다. 야외집회 때 비가 와도, 예배드릴 처소가 없을 때도,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우리 성도들이 위급할 때도, 성도들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구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셨다. 또한 마가복음 16장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귀신을 쫓으라고 하셔서 그대로 하니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14:12)라는 말씀까지 이루게 하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좋은 연장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

“여러분, 영경위가 겹겹이 들러붙은 이 불도저를 보세요! 쓰지 않아서 녹이 스니 저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런 꼴이 되고 맙니다.” 추계산상집회 첫날 저녁,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에 모인 성도들에게 총회장 목사님은 영경위가 뒤덮인 채 녹슬어버린 불도저 사진을 보여주시며, 첫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다. “이 불도저는 기도원 여러 공사에 쓰임 받던 좋은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장비도 쓰지 않고 기도원 뒷마당에 방치했더니 녹슬어버려 이 불도저는 이제 폐품처리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나게 쓰임 받던 삼손, 이삭, 엘 초대 왕 사울, 그들은 어쩔습니까? 당대에 아주 잘나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총회장 목사님은 봄, 여름, 가을철마다 산상집회를 진행하시며 성도들을 영적 훈련장인 이 장성 기도원으로 소집하신다. 이는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연장이 녹슬지 않도록 기도시키고 찬양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군인들이 총을 쏘고 나면 날마다 총구를 닦고 기름칠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방치한다면, 총구는 녹슬어버릴 테고 유사시 사용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왜 그 은사를 그냥 놀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귀신 쫓고 계속 사용해야지요. 성령의 좋은 은사들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쉬지 않고

리앗을 쓰러트렸는지 아십니까? 다년간 물맷돌을 던져 맹수를 잡으며 연습한 결과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을 보십시오.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원으로 부른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 영·혼·육을 닦고 기름치고 조이면 두려움, 고통, 병의 근원인 귀신이 떠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18번 말씀,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성도들에게 함독시키시고, 1시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찬



2025 추계산상집회(11월 3일~6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테 자신의 영·혼·육을 점검하지 않았더니 한 명은 여자에 넘어가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는 수모를 겪다 죽었고, 한 명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라도 쓰지 않으면 도태되고, 아무리 값지고 훌륭한 연장이라도 쓰지 않으면 폐기처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며 해외집회를 가고,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며, 국내 여러 집회 및 오늘의 추계산상집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녹슬면 버림받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사 가운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쉬다가 연장이 녹슬어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2100년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로 한 번에 거인 골

송을 함께 부르고 대성전을 종횡무진으로 누비시며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주시고, 귀신을 쫓으셨다. 이에 성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뜨거운 은혜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예수중심교단 성도들의 영성 계발을 위한 최고의 영적 훈련장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이번 집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기도로, 물질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해준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송헌예 생도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예배를 마치고 대성전을 내려오는 성도들



좋은 일기 속에 야외식당에서 식사하는 성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1~3)

준비하지 않은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

“목사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젊은이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단다. 바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점검했다는 거지. 너도 그들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제 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개최된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성공 요인이 뭘까?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를 위해 기도도 준비했기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각국 정상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국무총리가 현장을 9번이나 돌아보면서 철저히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까지 고려해서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까지 제작하여 선물하니 훈풍이 일어 난항이던 관세협정까지 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의뿐 아니라 방송 송출, 통신, 교통, 숙박 등 모든 시스템의 기반을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했기에 성공적인 APEC이 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겐 기회가 와도 그림의 떡이다

인생 성공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첫째,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려 해도 어느 회사가 나에게 잘 맞는지, 장래가 있는지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 해도 미래 전망이 어떤지,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원금 회수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누구랑 동업해야 할지 정보를 입수해야지요. 결혼이요? 더욱이 정보 입수가 필수입니다. 올 월동준비를 할 때도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를 가야 싸고, 어디에 가야 좋은 물건이 있는지 정보를 입수해야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 없이 덤벼들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수2:1).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어 현실적인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그 정보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략의 기초가 되었고, 그 정보로 라합을 통한 하나님도 계획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단순한 열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느2:12~15).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을 때 거침없이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영·혼·육이 성공하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정보를 아낌없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를 입수했으면 철저한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모레면 수능입니다. 교단의 수험생들이 제게 기도 받으러 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배우고 익힌 것이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줍니다. 준비한 것만큼 실력이 발휘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이 땅

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 이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준비가 중요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뭣 하려 성경에 개미를 보고 배우라 했을까요(잠6:6).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냉큼 잡을 수 있고, 준비해야 때사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 실수하지 않고, 준비해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철저히 준비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늘, 우리도 마땅히 매사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왕 준비하는 거라면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기름을 아예 준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예정보다 신랑이 늦게 오니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고, 뒤늦게 기름을 사러 다녀오니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넉넉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납니다. 기회가 와도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겁니다. 취업의 기회, 창업의 기회, 결혼의 기회, 천국 가는 기회를 다 놓치고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맙니다. 넉넉히 준비해야겠지요?

넉넉히 준비한 사람을 꼽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실세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유

레없는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된 7년간의 소출을 각 성에 비축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창41:47~49). 넉넉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국은 물론이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애굽을 최대 부국(富國)으로, 최대 강국(強國)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거침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동력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돈은 물론이요, 성전을 장식할 보석까지 준비했으며, 심지어는 작은 못까지도 다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석수와 목수, 일에 능한 자들도 다 확보해놓았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요2).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를 망쳤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태에 이르렀

을까요? 주인이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 리를 가자면 십 리를 가는 마음으로, 100명이 오겠다 싶으면 200명분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인천 교회를 지을 때도 추정한 예산보다 더 넉넉히 준비했기에 무난히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도 넉넉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하지 맙시다. 당연히 사후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겠다는 믿음은 위태롭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받을 갈던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하는 것을 보세요. 이젠 안 믿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눅12:40). 이것이 우리가 항상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셋째, 준비했다고 해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 엘살바도르 집회가 힘들었던 이유가 뭘까?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말만 믿다가 호되게 당한 겁니다. 자고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난 귀하디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테스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점검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도, 행위도 점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13:5),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갈6:4). 더불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눅14:28~30).

여유로운 삶은 준비한 자의 몫이다

여러분, 영·혼·육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는 배짱이 풀이 나고 말 것이니, 지금 바로 준비하고, 바로 점검합시다.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점검하면 철저히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답보다 질문이 중요한 시대

단지 정답만을 찾아내기 위해 주력했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후보주자로서 선진국의 모델을 부지런히 쫓아가며 배웠고, 그 성과로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앞의 길을 인도해줄 선도주자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나 AI의 등장은 이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가야 하는 험난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의 등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를 신속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답을 잘 찾아내던 지식전문가들의 밥그릇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합니다. 실례로 한 연구소에서 젊은 인재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한 달 이상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AI가 단 몇 시간 만에 비슷하거나 더 나은 보고서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답을 찾는 것은 인간보다 AI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따라서 답을 찾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학위를 따낸 젊은 인재보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니어들이 AI시대에 더 유용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쉬운 예로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것저것 잡학지식을 우리에게 물곤 하셨는데, 이젠

휴대폰에 탑재된 AI 비서를 통해 다 알아 내시는 관계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묵회와 선교에 있어 그 누구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에 더 정밀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요.

AI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줄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젠 답보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엉터리 답이 돌아올 것이요, 좋은 질문을 하면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번역프로그램에 한글 문장을 넣었을 때 한국어를 잘 풀어서 쓰면 좋은 번역을 얻어낼 수 있지만, 구어체로 문장을 어설프게 올려놓으면 번역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을 경험해보았을 겁니다. 따라서 전달력이 좋은 문장을 구성해내는 능력이 번역프로그램에 더욱 유용합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기술, 능력이 좋은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자칫 젊은 세대들의 일거리를 더 마르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변혁의 시대에 마냥 두려움만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잠2:7)는 하나님, 부족한 지혜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 이 변혁의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약1:5).

Henry Han

∴ 오늘의 메시지 ∴

눈물의 기도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철학과 쾌락을 탐닉하고, 마니교에 빠지는 등 타락한 생활을 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자 밀라노의 암브로스 주교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며 위로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탕자를 성자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울면서 기도하던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였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사38:1)는 말을 듣고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사38:1~6). 베드로는 법정에서 신 예수를 세 번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나자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마 26:33~34)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더니 능력의 사

도로 쓰임 받게 되었다(마26:75).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행20:31) 하였고, 또한 애통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했으며(고후2:4), 로마 감옥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빌립 교인들을 권면하였다(빌3:18). 이런 바울의 겸손과 눈물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하였고,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 역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고 증거하신다(히5:7).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기는 길이다. **김상욱 목사**



∴ 교단소식 ∴

The Grace of God II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량진 교육관에서 '하나님의 은혜2'라는 주제로 월드프레이즈 찬양집회가 열렸다.

이월드 묵사는 찬양집회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이번 집회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지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집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새신자도 초청하지만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오자는 뜻이었다.

집회에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지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대성전과 소성전에 가득 찬 영혼들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안 움직이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찬양에 앞서 이월드 목사의 메시지가 가슴을 울렸다. “오늘은 신나게 뛰며 찬양하기보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찬양집회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찬양집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며,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

고 먼저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나를 죽이고 예수로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찬양집회에는 찬양과 감사기도, 말씀과 회개,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이날 한 참 교회를 떠나있던 한 청년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고, 주님의 일에 지쳐 있던 한 일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에 마음이 깨어져 다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교단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건해졌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청년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다음 세

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회중들과 함께 ‘뜻대를 향하여’ 찬양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달려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역사하신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처럼,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이며, 찬양은 우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세우는 힘이고, 교회가 하나 되게 묶는 힘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월드 프레이즈를 계속하는 이유다.

부르짖으며 방언으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다음 세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찬양집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 물질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윤보혜 생도

:: 간증 ::

:: 신앙예세이 ::

올해는 되는 해, 시드니에서 받은 복



올해 송구영신예배 때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한 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무엇을 도전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작년 11월, 우리 가족은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호주 시드니 집회를 준비하였다. 개척한 지 10년, 벌써 두 번의 집회를 마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목사님께 감사하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언제나 헌신과 물질이 필요하다. 작년엔 집회를 위해 심었다. 그리고 올해는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풍년의 해’라 생각하니, ‘무엇을 도전하여 열매 맺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중 호주에서 운영 중이던 가족 식당이 새 메뉴를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이제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1~2년이 아니라 20~30년을 바라보고 사업하려면 우리에게

게는 새 메뉴가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해 봅시다. 때마침 목회자 세미나도 있을 예정이니 와서 세미나 참석도 하고 시장조사도 해보श्य요.” 어머니는 실행력이 빠르셨다.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하셨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이 낙지 전문점이었다. 불맛이 살아 있는 게 참 맛있었다. 놀랍게도 그 식당은 코로나 이후 불과 5년 만에 300호점까지 확장된 프랜차이즈의 1호점 본점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다. 사장님께 본사와의 미팅 자리를 주선했달라고 했고 바로 다음 날 본사 미팅이 잡혔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빠르고 정확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불과 몇 달 전 처음으로 일본 진출을 마치고, 호주 시장조사를 위해 한 달 전 대표가 시드니에 다녀온 상황이었다. 마침 프랜차이즈를 확장해갈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던 그 회사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었다. (더군다나 미팅 후 참석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잘되는 교회와 잘되는 식당의 공통점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교회의 비전에 관해 이야기하셨다. 우리에게는 확증이었다.) 그 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우리는 9월 말에 가게를 오픈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 오픈 한 달 동안 매일 손님이 줄을 서서 먹는 지역의 대표 맛집이 되었다. 온라인에는 ‘시드니 최고의 맛집’이라는 후기와 인증 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6개월 만에 일어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복이었다. 물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리가 새로 얻으려던 건물에는 기능상 문제점이 있었고, 전주인과의 계약 조건 협상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배운 대로 작성 기도와 여리고 7바퀴 작전을 감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팔지 않겠다면 전주인에게 연락이 왔고 적절한 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닫을 자가 없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되는 해’였다. 약속받은 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그저 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올해는 되는 해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올해는 복을 받는 풍년의 한해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두 도전하면 좋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꺾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10:29~30).

구리교구 문천영 전도사



:: 주님을 향한 노래 ::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보자!

작년 목회자 세미나의 첫 시간은 뜨거운 통성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부터 단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한 전도사님은 두 손을 들고 발까지 구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문득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기에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이 다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한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실력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내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늘 남의 간증만 듣고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의 능력을 베푸실 자를 찾고 계시지만(대하16:9),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의 역사를 맛본 자는 사렐라의 한 과부뿐이었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많았지만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나아만 뿐이었습니다(눅4:25~27).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모든 이에게 허락되었지만,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늘 그렇듯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친 끝에 예수님의 관심 끌기에 성공합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는 아예 지붕을 뚫고 내려가 예수님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을 정도로 통곡하는 기도로, 히스기야는 제비같이, 학같이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

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가지고 담대히 나간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의지하고 고백하여 제단에 불을 내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총회장 목사님도 집회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를 앞세우고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오십니다.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봅시다. 그리하여 내 삶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가득 넘치고, 남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호민 전도사

인생을 다시 산다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참 좋을 때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생들을 보면 청춘의 꽃이 피어나는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다. 내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나를 보면 또 다른 느낌이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현재의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으로, 마음에 사무치는 장면으로 다가오는지. 88체육관 전체가 들쭉일 정도로 성도님들 모두 목사님을 따라 뛰며 박수를 치고, 두 손을 흔들며 찬양하던 장면, 가족들과 집 근처에서 외식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서로 웃던 장면, 퇴근길 집에 가까워질 때 하늘에 붉은 노을이 펼쳐지던 장면, 문득문득 내 두 눈에 담아지는 평범한 일상이 감격적으로 다가온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아이일 때는 엄마와 아빠를 더 많이 꼭 안아드리리라. 사춘기를 지날 때는 애써 말을 예쁘게 해보리라. 학생 때는 지식에 좀 더 호기심을 갖고, 행동에 좀 더 용기를 가지리라. 청년 때엔 늘 생각보다 자산 형성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리라. 일찍부터 운동을 하여 체력을 기르리라. 신혼 때로 돌아가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아이들 앞에서 아내와 다투지 않으리라. 시간을 돌려도 부모님께 더 나은 아들이 될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리라.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습관을 갖고, 찬양을 더 부르고, 하나님의 전에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환경에 꼭 파묻히리라. 그러나 돌아갈 수 없기에, 이제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박찬영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랑진 교육관 기도회

노랑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

멕시코 가르시아 집회

2025년 11월 19일~ 28일